완도군, 설 명절 특별 방역 '모두 멈춤' 운동 전개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5대 분야 24개 과제 중점 추진

귀성객 코로나19 진단 검사·사랑의 콜 센터·떡국 지원 등

완도군은 지난 추석 지자체 최초로 '이동 멈춤' 운동을 전개한 데 이어 설 명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모두 멈춤' 운동을 1월 18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개한다.

'모두 멈춤' 운동은 5대 분야, 2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5대 분야는 ▲'모두 멈춤' 운동 참여 확산, ▲귀성·역귀성객 관리 특별 방역 추진, ▲군민·향우 참여 제고 위한 복지 행정 서비스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특산품 소비 촉진, ▲완도군만의 차별화된 방역 활동 등이다.

첫째, '모두 멈춤' 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군수 서한문 배부, 전국 향우회장 공동 명의 호소문 발표, 민관 합동 캠페인, SNS 릴레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둘째, 귀성·역귀성객 관리 특별 방역 대책 추진으로 각 읍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귀성객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역귀성객은 복귀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읍면 '안심 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방문을 인증하는 '귀성객 자율 신고제'를 운영하고, 각 마을이 주체가 되는 '마을 지킴이 방역 봉사단'을 구성하여 귀성·역귀성 명단 파악 관리 및 방역수칙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군민 및 향우들의 '모두 멈춤' 운동 참여 제고를 위한 복지 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온라인 부모님 안부 살피기, 독거노인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매생이 떡국 등 설 명절 음식 나눔, 온라인 성묘, 추모 공원 합동 성묘 및 차례 등을 지원한다.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랑의 콜 센터'를 운영하여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향우들이 읍면에 '부모님 안부 살피기'를 신청하면 읍면장이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 설 선물 전달 및 자녀 세배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을 위해 군 대표 쇼핑몰인 완도군이숍과 우체국쇼핑몰 등에서 활전복과 전복 가공품 등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설 선물 주고받기, 세뱃돈 주기 등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섯째는 완도만의 차별화된 방역 대책으로 '저인망식 생활방역 특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요양·종교 시설, 음식점, 숙박업소 등 1,651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쓰기와 발열 체크, 출입 명부 관리 등을 점검한다.

군민과 관광객 접촉 최소화를 위해 테이블 분리를 실시하는 안심식당 지정·운영과 여객선터미널 출입구 발열 체크 실시, 마스크 미착용 시 승선 거부 조치, 소독 등 여객선 특별 방역도 추진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의 확진자 발생 사례를 보면 타 지역 방문을 통한 외지인과의 접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서 "민족 대명절인 설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지 못해 아쉽겠지만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귀성 및 역귀성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등 '모두 멈춤' 운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우리마을 현안은 주민자치로 해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모집

해남군은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2021년 1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주민들이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10인 이상 주민들이 공동체를 조직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한 마을공동체는 씨앗, 새싹, 열매단계로 성장해 나가며, 각 500만원, 800만원,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 특화모델로 만들어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마을공동체가 자립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7년 2개소로 시작한 해남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2020년에는 21개소가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4년동안 총 35개 마을공동체가 활동하였다.

군 관계자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회관을 폐쇄하는 등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마을공동체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는 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해남군 혁신공동체과 사회적경제팀(☎061-530-5283)과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061-286-1069)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군민 안전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우수'

최고 1000만원 보장…자연재해 등 14개 항목 가입

진도군이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총 2건의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화재와 9월 익사 사고로 숨진 군민 유가족에게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진도군이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진도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중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14개 항목을 보장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외국인 포함)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당했어도 진도군민이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올해는 가스 사고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등 다양한 담보 내용이 포함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산 햅쌀로 만든 강진한과 맛보세요

강진산 원료·4대 이어온 수제 한과 생산…소비자에게 인기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산다움'에서는 2021년 신축년 설을 맞이하여 부모님 및 친지분들 선물로서 좋은 우리나라 전통 먹을거리인 한과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한과는 유과·강정·약과·다식·매작과로 구성되어있는데, 한과의 주재료, 부재료는 쌀을 비롯한 콩 등의 곡물과 참깨, 들깨, 흑임자 등의 종실류, 견과류 및 한약재, 과채류이다.

단맛을 내는 재료로는 설탕보다는 천연감미료인 엿기름으로 만든 조청이나 꿀이 쓰인다. 그 밖에 계피가루, 모과, 대추 등의 한약재가 두루 쓰이고 있어 영양 면에서 우수하고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농업회사법인 산다움은 4대를 이어온 전통한과를 만들어 오고 있다. 옛날 방식 그대로 수제로 만들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하고 또한 현대인 입맛에 맞게 달콤하면서도 담백하게 만들어 전통의 맛과 멋을 그대로 담았다.

특히 강진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 수확한 쌀, 참깨, 검은콩 등을 가지고 한과를 제조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선물로 인기몰이 중인 한과세트는 1.1kg 3만 5천 원, 1.2kg 5만 원, 2.5kg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국비 16억 등 총 32억 지원

장흥군이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융복합지원사업은 특정 지역 및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흥군의 경우 태양광·태양열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비 16억 원을 지원받고 도비 2억 원, 군비 10억 원, 자부담 4억 원이 소요돼 총 32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된다.

2월부터 328개소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 상업 건물, 마을회관, 토요시장 등 장흥읍 일대에 설치할 예정이다.

주택 등 민간 건물에 326개소, 공공건물에 2개소,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255개소·태양열 73개소에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건물은 토요시장에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흥=김도영 기자